

スキット部門台本

①ブラックデー

<교실에서>

A: 2월하고 3월은 밸런타인데이랑 화이트데이 때문에 바쁘지?

B: 맞아. 그래도 1년에 한번 있는 날이니 즐겁잖아.

A: 올해는 직접 초코릿을 만들어 봤어.

B: 정말! 대단하다. 힘들지 않았어?

A: 응. 좀 힘들었는데, 만드는 건 즐거웠어.

B: 이렇게 정성이 든 초코릿을 받아서 너무 고마워.

A: 아냐, 나에게 있어서 너는 소중한 친구이니까.

B: 감동해서 눈물이 나올 거 같애.

A: 그런데, 「블랙데이」라고 들어 본 적 있니?

B: 그게 뭐야?

<스마트 폰을 보면서 친구와 이야기 중>

A: 이거 좀 봐.

B: 왜, 한국 사람들이 까만 라면을 먹고 있지? (이하, 자유창작)

<教室にて>

A: 2月と3月はバレンタインデーとホワイトデーがあるから忙しいでしょう。

B: そう。でも年に1回だけある日だから楽しいじゃん。

A: 今年はチョコレートの手作りに挑戦してみたよ。

B: 本当に!すご~い。大変じゃなかった?

A: うん。ちょっと大変だったけど、作るのは楽しかった。

B: こんなにあなたの気持ちが込められたチョコレートをもって嬉しい。

A: いいえ。あなたは私にとって大切な友たちだから。

B: 感動して涙が出そうだよ。

A:ところで、「ブラックデー」って聞いたことある?

B: それってなに?

<スマートフォンを見ながら友達と話し中>

A: これ、みて。

B: どうして韓国人が真っ黒なラーメンを食べているのかな。

(以下自由創作)

②ヤンニョムチキン

<<교실에서>

A: 요즘 주변에 한국 음식점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.

B: 그렇게 말이야. 나도 역 앞에 있는 한식집에 자주 가는데.

A: 그래? 얼마나 자주 가는데?

B: 일주일에 한..... 일곱 번 정도?

A: 그거 거의 매일 간다는 말이잖아?! 너 진짜 한국 요리 좋아하는구나.

B: 듣고 보니 그러네. 매콤한 걸 좋아해서 한국 음식이 내 입맛에 딱이야.

A: 한국 음식 중에서 뭘 제일 좋아해?

B: 음... 비빔밥도 좋고 떡볶이도 맛있고... 다 맛있는 한데, 역시 양념치킨이 제일 맛있어.

A: 아, 양념치킨! 나도 양념치킨 좋아하는데. 매콤 달콤한 맛에 바삭바삭한 식감!

B: 그런데 양념치킨이 한국 전통요리인가?

A: 그건 아니지 않나? 원래 치킨은 서양 요리잖아.

B: 그럼 양념치킨은 한국요리가 아니야?

A: 한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거니까 한국요리이긴 한데..... '한국식 서양요리'라고나 할까?

B: '한국식 서양요리'라고? 그럼 결국 어디 음식인 거야?

(이하, 자유창작)

<教室にて>

A: 最近周りに韓国料理のお店がずいぶん増えたみたい。

B: そうだね、私も駅前の韓国料理のお店によく行くけど。

A: そう?どれくらい行ってるの?

B: 一週間に大体.....7回ぐらいかな?

A: それってほとんど毎日行ってるってことじゃない?! 本当に韓国料理が好きなんだね。

B: 言われてみればたしかにそうだね。辛いのが好きだから、私には韓国料理がぴったりなのよ。

A: 韓国料理の中で何が一番好き?

B: うーん.....ビビンパもいいし、トッポッキも美味しいし.....美味しいのは全部美味しいけど、やっぱりヤンニョムチキンが一番美味しいな。

A: あ、ヤンニョムチキン! 私も好き。甘辛い味にサクサクの食感!

B:ところで、ヤンニョムチキンって韓国の伝統料理なのかな。

A: それは違うんじゃない? チ킨はもともと西洋料理でしょ?

B:じゃ、ヤンニョムチ킨は韓国料理じゃないってこと?

A: 韓国で初めて作られたんだから韓国料理ではあるけど.....「韓国式西洋料理」とでも言うのかな。

B: 韓国式西洋料理?じゃあ、結局どこの料理なのよ。

(以下、自由創作)

※スピーチ部門参加希望者は、選択テーマに沿って自由に文章を創作ください。

テーマ: ①韓国の人に伝えたい日本文化

②韓国語を使ってやってみたいこと